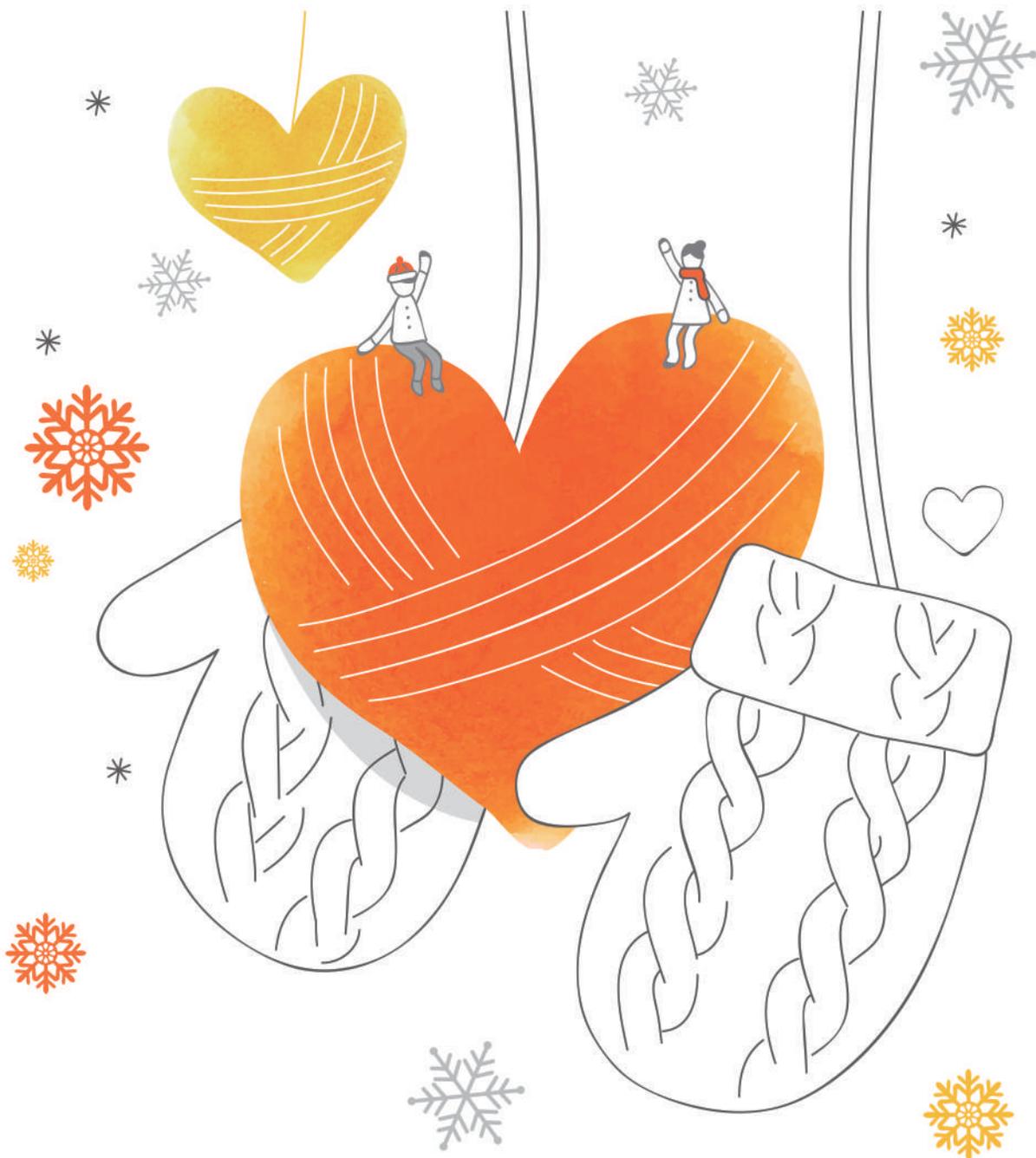


한마음도서관 이야기

Hanmaum Library Story



발행 : 거창군평생교육센터
발행일 : 2017년 12월 30일
주소 : (50130)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6길 11
전화 : 055-940-8470
<http://library.geochang.go.kr>

2018년 한마음도서관은 공유와 개방, 협력 '머물고 싶은 도서관', '꿈을 이루는 도서관'

한마음도서관은 2006년 개관한 이래 스스로 개혁하면서 더욱 더 지역민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고자, 2017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사업에서 다양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군민의 독서문화를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식의 도시' 기반을 다지는 도서관으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가장 믿음직한 정보와 자료, 사서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이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지역민의 친구 같고, 안식처 같은 지역중심의 역할을 담당하는 장소로 주력해왔습니다.

거창군민의 꿈의 실현과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간도서 구입에 힘쓴 결과 장서보유량은 12만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 욕구에 맞춘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길 위의 공모사업 등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독서프로그램까지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는 도서관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고, 현재를 알려면 시장에 가며, 미래를 알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서관은 지역경쟁력은 물론 한발 더 나아가 지식국가 경쟁

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미래지향적 학술정보센터로서 지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걸맞게 도서관과 사서들은 고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층의 도서관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민이면 누구든 평등하게 자신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및 도서관의 이용환경 서비스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018년 한마음도서관은 공유와 개방, 협력이라는 키워드와 밀접한 도서관, 그리고 거창군의 학습도시를 만드는데 핵심인 '머물고 싶은 도서관', '꿈을 이루는 도서관'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도서관 실정에 맞게 도서관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참신한 방안을 마련하여, 군민을 존중하고 세상의 변화에 발을 맞추는 한마음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무한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통권

19

Vol.19
December
2017

한마음도서관이야기는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library.geochang.go.kr



Contents

- 04 도서관 공모사업
- 06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 08 도서관 선진지 벤치마킹



- 10 도서관 행사 갤러리
- 10 - 2017년 작가초청강연회
- 12 - 2017년 독서문화프로그램
- 17 - 책 읽는 가족

- 18 글 마당
- 18 -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곳, 한마음도서관
- 20 - 책 고르는 설레임, 책 읽어주는 즐거움



- 22 한마음도서관 추천도서&DVD
- 26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 27 도서관 회원가입 및 이용안내

도서관 공모사업

우리 도서관의 인문정책은 지역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지역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는 문화적 의식화의 가능성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민들이 공감하고 치유, 기억, 나눔, 소통처럼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한 인문적 내용을 공유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금 거창은 고전문학 함께 읽기”란 주제로 분명한 주제 의식이 녹여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책임감이 아닌 함께 읽는 독서공동체에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감정은 세대와 세대간의 어울림과 소통의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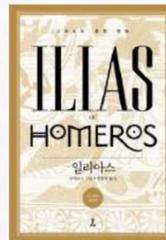
2017년 한마음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 프로그램명** 지금, 거창은 “고전문학 함께 읽기”
- 추진 목적** ‘고전문학 함께 읽기’를 통해 인간과 삶에 대한 철학적 사유의 힘을 길러 지역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계기 마련
-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17. 4. ~ 11.
사업내용 : 서양고전의 시초가 된 ‘일리아스’와 ‘오뒷세이아’를 세밀하게 읽고 시·공간을 초월한 우리 삶의 방향성을 참여자간의 원활한 소통
사업실적 : 총 18회, 130명

1차 서양고전 '일리아스'를 통한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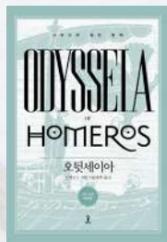
차시	일시	주제	내용
1강	7월 05일 (수) 19:00~21:00	트로이 전쟁	일리아스 1권~2권
2강	7월 12일 (수) 19:00~21:00	영웅들의 명예와 전쟁	일리아스 3권~5권
3강	7월 19일 (수) 19:00~21:00	삶의 비극	일리아스 6권~8권
4강	7월 26일 (수) 19:00~21:00	운명-아킬레우스의 선택	일리아스 9권~11권
5강	8월 02일 (수) 19:00~21:00	신들의 전쟁	일리아스 12권~14권
6강	8월 09일 (수) 19:00~21:00	우정과 전우애	일리아스 15권~17권
7강	8월 16일 (수) 19:00~21:00	영웅의 부활	일리아스 18권~21권
8강	8월 23일 (수) 19:00~21:00	영웅의 죽음과 명성	일리아스 22권~24권
9강	8월 30일 (수) 19:00~21:00 후속모임	'나'를 관찰하고 발견하는 것을 "함께 읽는 일리아스"	'일리아스' 인물들의 삶을 알아보고 함께 토론

김민정 강사



일리아스
함께 읽기

오뒷세이아
함께 읽기



2차 서양고전 '오뒷세이아'가 주는 삶의 풍요

차시	일시	주제	내용
1강	9월 06일 (수) 19:00~21:00	텔레마코스의 성장	오뒷세이아 1권~3권
2강	9월 13일 (수) 19:00~21:00	오뒷세우스와 칼립소	오뒷세이아 4권~6권
3강	9월 20일 (수) 19:00~21:00	오뒷세우스와 퀴클롭스	오뒷세이아 7권~9권
4강	9월 27일 (수) 19:00~21:00	오뒷세우스의 험난한 여정	오뒷세이아 10권~12권
5강	10월 11일 (수) 19:00~21:00	오뒷세우스와 에우마이오스	오뒷세이아 13권~16권
6강	10월 18일 (수) 19:00~21:00	오뒷세우스와 페넬로페	오뒷세이아 17권~19권
7강	10월 25일 (수) 19:00~21:00	오뒷세우스와 구혼자들	오뒷세이아 20권~22권
8강	11월 01일 (수) 19:00~21:00	오뒷세우스의 귀향	오뒷세이아 23권~24권
9강	11월 08일 (수) 19:00~21:00 후속모임	'나'를 관찰하고 발견하는 것을 "함께 읽는 오뒷세이아"	'오뒷세이아' 인물들의 삶을 알아보고 함께 토론

백은희 강사



일리아스 함께읽기



후속모임1



오뒷세이아 함께읽기



후속모임2



library.geochang.go.kr

한마음도서관이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library.geochang.go.kr

한마을도서관이가는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작은도서관에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2017년 2월부터 10월까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도서 정리와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작은도서관을 방문하는 지역 주민에게 좀 더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순회사서를 통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연계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소만 작은도서관

기증도서 및 구입도서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들의 책에 접근하는데 있어 편리함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상근인력의 부족함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코아루나눔 작은도서관

정기적으로 책을 읽어주고 관련 독후활동을 함께 하여 책과 친해지는 계기 도 마련하고 '책 읽는 어린이'로 성장하는데 기초가 되길 바랍니다.



참살이 작은도서관

개원을 목적으로 기증되어 있는 수많은 장서 중 일부는 도서관에 등록하고 도서관의 기준이나 특성에 맞지 않는 책은 폐기하는 작업을 통해 안정된 장서확보에 도움을 주고 자료실 꾸미기와 체계적인 도서 배가 작업으로 앞으로의 작은도서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글벗나래 작은도서관

매월 진행되는 '독서글벗'의 운영과 도서관으로 견학 오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책 읽어주기' 그리고 여름방학 프로그램 '맛있고 재밌는 책놀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등을 통해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동시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는 계기 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안정화를 위한 필수적이고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지식확대의 도구로, 소통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작은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아 함께 성장해 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도서관 선진지 벤치마킹

보다 나은 도서관을 위하여 도서관 직원 및 독서활동가 15명이 서울의 별마당도서관, 운동주문학관, 청운문학도서관으로 '도서관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도서관의 견학을 통해 특색 있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우리 도서관의 발전에 접목시켜 군민을 위한 군민중심의 문화공간 조성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한마음도서관이기는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별마당도서관을 다녀와서

무엇이나 좋으니 책을 사라. 사서 방에 쌓아 두면 독서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겉치레 같지만 이것부터가 중요하다. 다급하게 책을 읽는 버릇을 가진 사람은 좋은 책을 천천히 읽어 나갈때의 묘한 힘을 알지 못한다.

내가 어릴 적 시골에는 읽을 책이 흔하지 않았다. 도서관은 당연히 없었고 아이들이 관심 갖고 재미를 느낄만한 책이 없었다. 고학년이 되어 읍내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어 처음 접하게 된 도서관은 서가가 하나 뿐인 아주 작은 공간이었다. 공주그림이 예쁘게 그려진 책표지에 반해 읽게 된 언어공주 책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나는 그렇게 해서 도서관을 생애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다.

이번에 한마음 도서관에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다른 도서관에 가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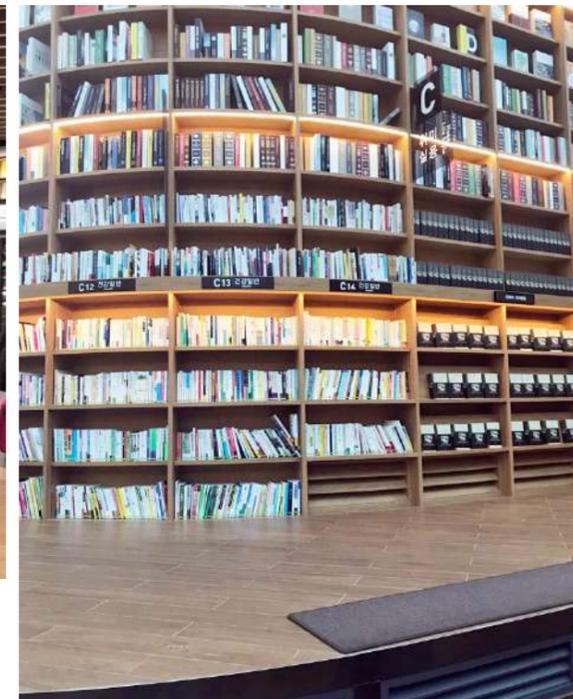
서울 코엑스몰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인데 이곳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과는 많이 다른 공간이라 놀라움이 먼저였다. 그곳은 숨소리도 조심스럽고 발소리는 미안한 그런 도서관이 아니라 소음마저도 도서관의 낭만인 것 같은 기다림의 장소, 만남의 장소, 놀이터 등 무슨 말로도 다 설명이 될 것 같은 그런 곳이었다. 문이 없는 트인 공간에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으며 머무르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곳, 책을 읽



고 싶게 만드는 공간이었다.

바쁜 생활 속에서 굳이 찾아 가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었다. 곧 크리스마스라 그런지 황금색으로 만든 대형 트리장식도 너무 멋져보였다. 시간만 된다면 하루 온종일 머물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주어진 시간이 조금뿐이라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서울의 서쪽 인왕산 아래의 서촌으로 가보았다. 그곳은 조선시대에는 주로 왕족, 사대부들이 거주했고 일제강점기에는 문인과 예술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으로 안평대군이 풍류를 즐기셨던 수성동계곡과 일제 강점기에 가슴에 한을 안고 돌아가신 운동주시인을 기리는 운동주 문학관이 있다. 산 초입에는 시인께서 하숙하며 문학의 꿈을 키우던 집이며 시



를 생각하며 걸었던 시인의 언덕이 있다. 그 길을 따라 우리는 눈이 와 얼어붙은 땅을 조심조심 걸으며 인왕산의 기운을 느끼고 시인의 고뇌도 함께 느끼며 걸었다. 날씨가 어찌나 추운지 칼바람에 고뇌를 아니 느낄 수가 없었다.

시인의 언덕에는 한옥으로 지어진 청운문학도서관이 있는데 문학위주의 책이 소장되어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늑하고 따뜻하다. 그다지 크지는 않는데 안쪽에 하늘이 트인 공간이 있어 날씨의 변화를 알 수 있기도 하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는 아주 멋진 풍경을 마주하게 될 것도 같다. 산책로에 도



서관이 있어서 조용하기도 하고 경치도 일품이어서 가족들의 나들이 장소, 힐링 장소로도 더없이 좋을 것 같다. 우리 거창에도 경치가 좋은 수승대에 도서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 좋은 곳을 좋은 사람들과 돌아보니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또 즐거움은 몇 배가 되는 것 같다. 앞으로 우리지역의 도서관을 위해 작지만 용기 내어 힘을 보태 봐야겠다. 행복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한마음도서관측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명희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library.geochang.go.kr

한미음도서관이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행사 갤러리

책과 문화를 통해 주민의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결과 다양한 자극과 만족을 얻어갈 수 있도록, 참여자간의 소통하고 교류해보는 프로그램 위주로 기획되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2017년 작가초청강연회

도서관, 인문, 문화, 예술로 지역민과 함께 누리는 특별한 즐거움

제63회 도서관주간 행사는 어린이를 위한 「드로잉 매직쇼」를 비롯한 5개의 프로그램과, 독서의 달 행사로는 「과월호 잡지배부」 등 7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작가초청강연회는 분기별로 4명의 작가를 초청하여 독자와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였고, 어린이 공연 및 각종 전시 등 다양한 문화들이 함께 융합 소통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도서관 행사는 지역주민을 위한 독서활동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서 또는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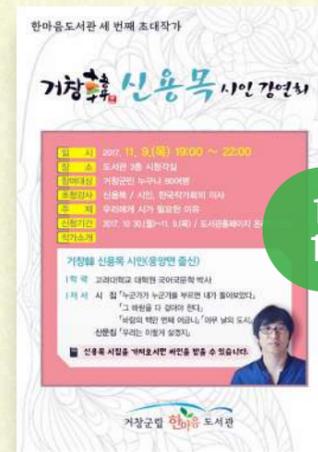
4
15

서민 작가 초청강연회
기생충과 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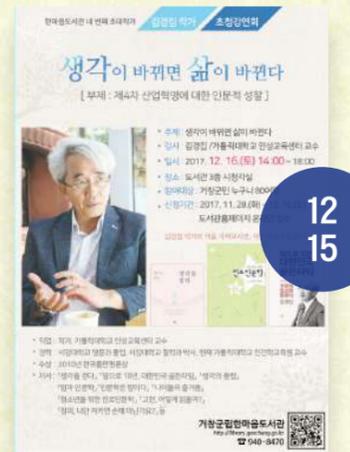
9
16

나무박사 박상진 초청강연회
문화와 역사로 만나는 우리나라



11
16

거창韓 신용목 시인 강연회
우리에게 시가 필요한 이유



12
15

김경집 작가초청강연회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2017년 독서문화 프로그램

어린이 1

어린이 강좌

즐거운 어린이 북아트,
책놀이북놀이,
노래로 배우는 영어

도서관은 지역민의 친구이고, 서민들의 안식처이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공간입니다. 도서관은 지역민에게 가장 믿음직한 정보와 자료, 사서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민들이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독서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책 읽어주는 날

어린이들의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 및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

어린이동화구연체험관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동화 속 배경에 우리 아이들이 투영되어 배경을 직접 만져보는 듯한 실재감을 주며, 배경과 어울려 즐거운 체험을 통한 흥미유발 등 독서진흥을 위해 서비스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체험관 운영안내

대 상 : 5세 ~ 7세 어린이(1회 10명 이하 입장)
일 시 : 매주 월·수요일
신 청 : 도서관 전화 문의
문의사항 : 940-8470, 8472



2017년 독서문화 프로그램

도서관은 지역민의 친구이고, 서민들의 안식처이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공간입니다. 도서관은 지역민에게 가장 믿음직한 정보와 자료, 사서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민들이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독서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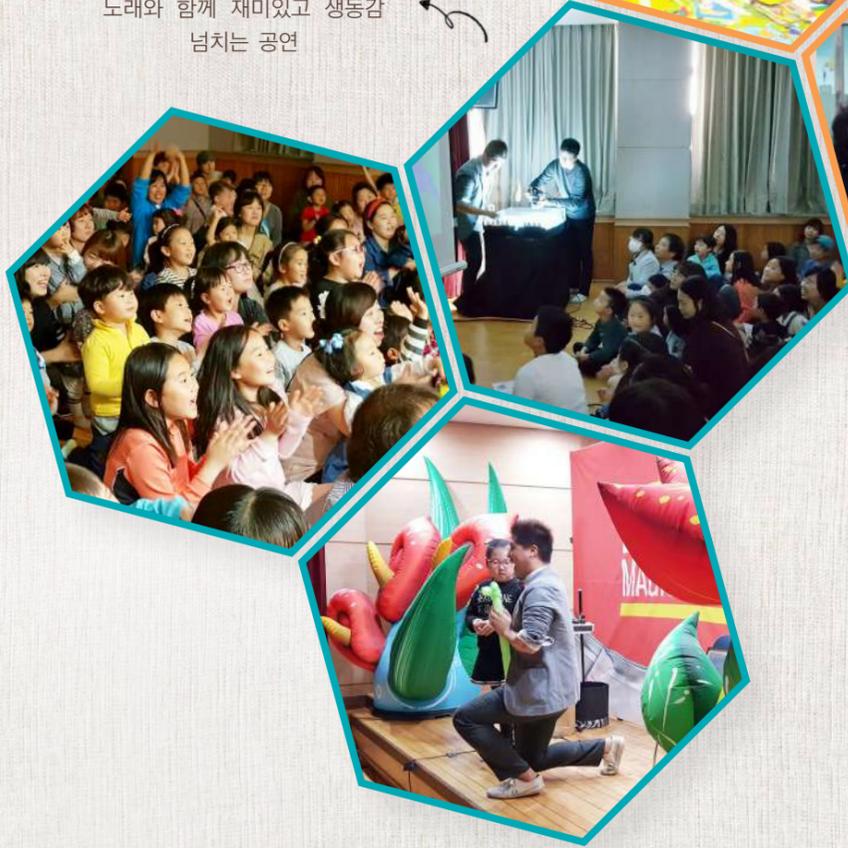
유아 강좌

창의과학 블록놀이,
옛이야기보따리



어린이공연

노래와 함께 재미있고 생동감
넘치는 공연



북스타트

영·유아시기부터 책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하고 책을 가까이하는 습관을 키워주도록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북스타트 책 꾸러미 지급

책 꾸러미 - 도서 2권, 가이드북, 선물, 에코백

북스타트 특강 운영

운영횟수 : 연 4기 / 각 기별 8주
운영시기 : 1기(3~4월), 2기(5~6월), 3기(9~10월),
4기(11~12월)

대상 : 북스타트 회원 중 8개월~ 27개월 영아
내용 : 도서 및 독후활동, 손유희, 율동, 만들기 등

2017년 독서문화 프로그램

어른

어른신 강좌
주역

‘독서를 통해 군민을 키운다’는 모토 아래 독서·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였으며, 도서관 인프라를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 기획을 힘을 기울여, 문화로 소통하는 사람 중심의 도서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책나눔 행복더하기

한마음도서관에서는 독서를 기증받아 일부는 도서관에 등록(소장)하고 나머지 도서는 책 나눔 행사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책 나눔, 행복 더하기』 행사는 매월 셋째 토요일 도서관 1층 로비에서 운영됩니다.

사람책 열람행사

소통과 소감의 만남, 사람책 열람활동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도서관 서비스

성인 강좌

다도교실, 벚꽃엔딩자수, 디딤돌 중국어, 독서동아리

2017년 책읽는가족

한마음도서관에서는 ‘2017년 책읽는가족’으로 김희권씨(한옥순, 김도은, 김도윤, 김도영) 가족과 백만복씨(김지예, 백민규) 가족을 선정하였다. 이 두 가정은 가족 모두가 한마음도서관을 활발하게 이용하여 한국도서관협회로부터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받았다. 김희권씨 가족은 480권, 백만복씨 가족은 424권을 읽었다

‘책읽는가족’은 가족독서운동 캠페인을 통하여 가족단위의 독서생활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제고와 이용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의 독서 기반시설로서의 도서관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작품전시회

수강생 작품 전시회와 그림책 원화전시, 별별책 서평전시

한마음도서관

도서관에서 일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게리 헐이 글을 쓰고 말리 모아가 그림을 그린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라는 어린이책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살아갈 날이 많지 않은 잿빛 산제비와 곧 문을 닫게 될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사서로부터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건물인 도서관이 없어지게 된다는 말을 듣고, 그녀와 함께 도서관 이곳저곳을 둘러본 잿빛 산제비는 그날 저녁 비둘기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자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건물’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집니다. 시청, 병원, 법원, 교회, 슈퍼마켓, 술집, 소방서, 경찰서, 기차역, 백화점, 극장, 박물관, 주유소, 상수도 관리국, 은행, 유치원, 학교, 우체국……. 저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건물’을 말했지만 연신 고개를 저은 잿빛 산제비는 그들을 도서관으로 안내한 뒤 이렇게 말합니다.

“책들은 분명히 마술이야! 책 속에는 모든 시대의 가

장 뛰어난 발명품인 언어들이 가득 차 있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절대로 잊혀질 수 없도록 쓰여질 수 있어. 우리가 있는 이곳은 세상의 지식들로 둘러싸인, 거대한 기억 은행이야. 이런 정보와 지식의 창고가 없다면, 문명은 존재할 수 없어. 그게 바로 이곳이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라고 하는 이유야.”

이러한 잿빛 산제비의 생각은 비둘기들에 이어 그들의 적인 고양이와 고양이의 적인 개들에게도 전파되어 그들을 도서관의 회원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축소하려는 시장에게 잿빛 산제비는 사력을 다해 이천 오백년 전 그리스 정치가가 한 말을 전합니다.

“우리가 동전을 잃어버린다 해도 가난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큰 도서관에 있는 지식과 지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될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 도서관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물이다”라고.

20여 년 전 이 책을 읽으면서 저 또한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곳은 어디일까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곳이 바로 도서관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책을 매개로 한 남녀노소의 놀이터이자 평생교육의 장이며 문화와 예술의 나눔터인 도서관이야말로 우리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데 아우른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 아닐까요?

얼마 전 올해 가장 핫한 책 중의 하나로 꼽

“책들은 분명히 마술이야! 책 속에는 모든 시대의 가장 뛰어난 발명품인 언어들이 가득 차 있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절대로 잊혀질 수 없도록 쓰여질 수 있어.”

히는 ‘말의 품격’을 읽으면서, ‘도서관의 품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치세력간, 세대간, 계층간, 남녀간(……) 갈등으로 날선 대립이 난무하는 시대를 극복할 해결책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책이지요.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 따뜻하면서도 은근한 한 마디 말은 잔잔한 울림이 되어,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에게도 크나큰 감동을 선사한다고 이기주 작가는 말합니다.

‘도서관의 품격’ 또한 이와 같지 않을까요?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규모의 건물과 장서량, 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더하여 운영자들과 이용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도서관을 아끼고 사랑하는 작은 노력들이 뒷받침될 때, 한마음도서관의 품격 또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집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기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넘쳐나가는 조용하고 깨끗한 책놀이터가 되기를, 그리하여 한마음도서관이 거창군민들이 자랑하는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곳’으로 오래도록 자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글. 방성애(월간 '자동차생활' 에디터)



library.geochang.go.kr

한마음도서관이기는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책 고르는 설레임 책 읽어주는 즐거움”

오랜만에 이야기를 풀어놓으려니 뭐부터 써야 할지 뒤죽박죽 복잡하다. 나의 그림책과 도서관에 관한 소소한 경험을 풀어놓겠다.

10년 전 안양에서 살던 우리 식구는 갑작스레 아무 연고도 없이 거창으로 이사 오게 되었다. 거창이 교육도시이고 도서관이 있다는 점에서 주저 없이 선택했다. 촌에 살지만 책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다. 처음에는 남상 둔동이라는 산골에 살면서 버스를 타고 한마음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러 오는 것은 커다란 그리고 중요한 문화생활이었다. 둘째를 업고 한 손에는 큰 아이 손을, 다른 손에는 빌린 책을 한 아름 들고



다니던 추억이 바로 어제 같다.

특히 한마음 도서관에 가면 토요일 마다 그림책을 읽어주는 분들이 계셔서 좋은 책을 고르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 아무런 기교나 설명 없이 그림책을 펼쳐서 그림을 보여주고 글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니 책에 오롯이 집중 할 수 있었고 ‘저렇게 책을 읽어주면 되는구나. 그림책이 참 재미있네. 남들 앞에서 책 읽어주시는 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도서관에서 엄마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또래 엄마들을 알게 되었고, 지역 정보를 얻으며 거창사람으로 적응하게 되었다. 그리고 책을 읽어주시던 봉사 단체인 동화읽는 어른과 (어린이 도서 연구회 거창지회) 인연이 되어 어린이 책을 공부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모임 일원으로 토요 책읽어주기 봉사와 어린이 책 문화 활동에 참여하면서 보람과 재미를 느꼈다.

그러다 보니 도서관에서 그림책을 찾아보고 우리 집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것이 내 일상의 취미가 되었다. 책을 읽어주고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들과 이불을 바다라 상상하고 신문지로 옷으로 만들어 입고, 숨으로 구름이라고 하면서 뒹굴며 놀기도 했다. 좋은 옷, 좋은 물건은 못 해주지만 책과의 추억이 값진 보물이 되었을 것 같다.

감사하게도 올해 3월부터 책놀이 선생님이로 저학년 친구들과 만났다.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이 쑥스러웠지만 우리 아이들과 놀았던 경험으로도 전하게 되었다. 친구들에게 처음 시간마다 하는 말이 있다. “친구들~ 도서관은 놀이터야. 가만히 마음을 열면 책 속에서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말을 걸어 올 거야. 그럼 뭘 하고 놀지 느

낄 수 있어~”

처음에는 엄마에게 떠밀려 왔던 아이들이 이내 마녀가 되어 마법의 주문을 외우고, 상상 속 마법을 펼친다. 바바빠빠처럼 길어졌다가 작아졌다, 계단이 되었다가 낙타가 되었다 자유롭게 변신한다. 그럴 때면 아이들 눈빛이 반짝이고 끝까지 만들어 보려는 모습이 참 예쁘다. 책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느낄 것이다.

책놀이는 많은 지식을 알려주기 보다 상상의 세계에 이끌려 주인공과 자연스럽게 돌아보는 것이다. 좋은 그림책 속에는 아이들 마음을 여는 장치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더 좋은 책을 찾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다.

읽어 줄 책을 고르는 것은 선물 고르기와 같다. “이 책을 좋아할까? 저 책을 읽어 줄까? 어떤 놀이가 더 재미있을까?” 매번 고민이다.

아이들이 “저번에 읽었던 책, 도서관에서 빌려봤어요.”라고 말해주면 감사하고 뿌듯하다. 이런 반응에 나는 책읽어주는 선생님이 된 것에 보람을 느낀다.



글. 윤혜원(토요특강 강사)

책놀이는 많은 지식을 알려주기 보다 상상의 세계에 이끌려 주인공과 자연스럽게 돌아보는 것이다. 좋은 그림책 속에는 아이들 마음을 여는 장치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더 좋은 책을 찾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다.



library.geochang.go.kr

한마음도서관이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자료실 추천도서

어린이·모자자료실 추천도서



세상을 바꿀 용기

저자명 : 존 솔림 / 출판사 : 미래인 / 청구기호 : 199 술298세

컬럼비아대학 교수이자 시민운동가인 존 솔림이 편자로 나선 이 책은 그렇듯 의미 있는 사회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펼쳐나선 청소년 활동가 52인의 솔직 담백한 성공담을 모아 엮은 논픽션이다. 각자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삶의 품격을 높이는 말부리기 연습

저자명 : 김영빈 / 출판사 : 새로운제안 / 청구기호 : 199.1 김64삶

책 읽는 즐거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질문을 받고 당황했을 어른들에게 명쾌하고 유쾌한 답변을 해 주는 책이다. 강요가 아닌 즐거움을 강조한 이 책은 책 읽기가 즐거운 101가지 이유를 아주 설득력 있게 풀어 놓았고, 중요한 사실을 담기도 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귀여운 내용도 함께 실어 놓았다.



리더를 위한 관계수업

(리더를 위한) 관계수업

저자명 : 미즈시마 히로코 / 출판사 : 21세기북스 / 청구기호 : 325.24 미77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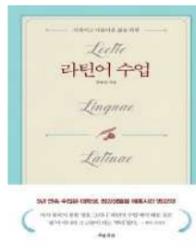


1948년 7월 어느 장날, 순진이 아버지가 장에서 암탉 한 마리를 사 오며 이야기는 시작된다. 순진이에 식구는 온몸이 새까만 암탉 '깜둥이', 깃털이 노란 암탉 '턱주배기', 깃털이 붉은 수탉을 키우는데 이듬해 설날이 다가올 무렵, 암탉들이 알을 품어 새끼를 낳는다. 그런데 깜둥이가 낳은 아기 병아리 중 한 마리가 어느 날 아궁이 불 속으로 뛰어들게 된다.

라틴어 수업

저자명 : 한동일 / 출판사 : 흐름출판 / 청구기호 : 792.2 한25라

한국인 최초, 동아시아 최초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 변호사이자 가톨릭 사제인 한동일 교수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서강대학교에서 진행했던 강의록을 책으로 옮겼다. 또한 저자는 유학 시절의 경험과 공부의 어려움,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성찰, 관계의 문제 등 삶의 면면을 이야기한다.



너무 일찍 철들어버린 청춘에게

저자명 : 장석주 / 출판사 : 21세기북스 / 청구기호 : 811.609 장54너

시와 세상의 징검다리 역할을 자처해온 시인 장석주가 <시인의 시 읽기 - 너무 일찍 철들어버린 청춘에게>를 들고 나왔다. 총 90여 편의 연재물 중 사랑과 이별, 청춘을 노래한 시 30편으로 묶어낸 이번 책은 어떤 철학서도 주지 못한 삶에 대한 통찰과 어떤 심리학서도 주지 못한 가슴 깊은 위로를 전해준다.

엄마·아빠 결혼이야기

대상 : 유아 / 저자명 : 윤지희 / 출판사 : 사계절 / 청구기호 : 유아813.8 윤78엄

아빠 엄마처럼 결혼하겠다는 아이. 그 아이에 눈에 비친 결혼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렇게 아이와 함께 결혼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끼리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아이는 그림책을 읽고, 엄마 아빠의 진짜 결혼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혼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빨강 파랑 강아지공

대상 : 유아 / 저자명 : 크리스 라쉬카 / 출판사 : 지양어린이 / 청구기호 : 유아843 라56빨



친구와 놀던 중에 아끼던 공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긴 강아지 데이지, 데이지를 위로해 주려고 애쓰는 소녀, 새 공을 선물 받으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강아지 친구. 다양하게 변화하는 동심의 세계를 섬세하면서도 유머러스한 감성으로 표현한 그림책이다.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대상 : 유아 / 저자명 : 존 클라센 / 출판사 : 시공주니어 / 청구기호 : 유아843 클292이

이 책은 계속 글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작은 물고기의 생각과 커다란 물고기의 행동이 절묘하게 어긋나는 독특한 재미를 안겨 준다. 이런 점에서 칼데콧 심사위원장인 산드라 임디에케는 “존 클라센의 가장다운 그림은 작은 물고기가 모르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라고 평했다.



빼빼기

대상 : 초·저 / 저자명 : 권정생 / 출판사 : 창비 / 청구기호 : CH813.6 권74빼



1948년 7월 어느 장날, 순진이 아버지가 장에서 암탉 한 마리를 사 오며 이야기는 시작된다. 순진이에 식구는 온몸이 새까만 암탉 '깜둥이', 깃털이 노란 암탉 '턱주배기', 깃털이 붉은 수탉을 키우는데 이듬해 설날이 다가올 무렵, 암탉들이 알을 품어 새끼를 낳는다. 그런데 깜둥이가 낳은 아기 병아리 중 한 마리가 어느 날 아궁이 불 속으로 뛰어들게 된다.

림 할머니의 감나무

대상 : 초·저 / 저자명 : 수니타레드밤레이 / 출판사 : 정인출판사 / 청구기호 : CH896.71밤294검

림 할머니는 정원에서 감나무 가꾸는 걸 무척 좋아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림 할머니는 나무에서 막 자라기 시작한 감을 발견하셨다. 그 감이 무럭무럭 자라 탐스럽게 익어가지라 림 할머니는 그 감을 사랑하는 손녀인 메이 링에게 줘야겠다고 생각하신다.



한마음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한마음도서관은 평일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들을 위해 2층 **종합자료실을 평일(월~목) 18:00 ~ 22:00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 야간은 대출 권수를 2배로 확대하는 '두배로 데이'로 도서를 10권까지(1인 총 대출권수 10권 이내) 대출 할 수 있습니다.



캘리그래피

야간 독서·문화프로그램 **캘리그래피 특강**을 통해 예쁜 손 글씨를 배우고 아기자기한 작품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인형극 공연

개관시간 연장을 통해 『**눈꽃마녀와 크리스마스**』 인형극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눈꽃마녀의 마법에 걸린 산타할아버지를 아이들의 착한 마음으로 구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유아 및 초등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library.geochang.go.kr

한마음도서관이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마음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책 읽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책 읽는 가족은 아름답습니다.
책 읽는 사회를 만드는 도서관은 아름답습니다.”



- 데스크 직원에게 신분증 제시
- ▼
- 안내에 따라 PC에서 회원가입신청
- ▼
- 본인인증
(휴대전화 또는 i-pin 본인명의)
- ▼
- 데스크에서 추가입력
(아이디)입력
- ▼
- 회원정보 입력
- ▼
- 회원증발급

회원가입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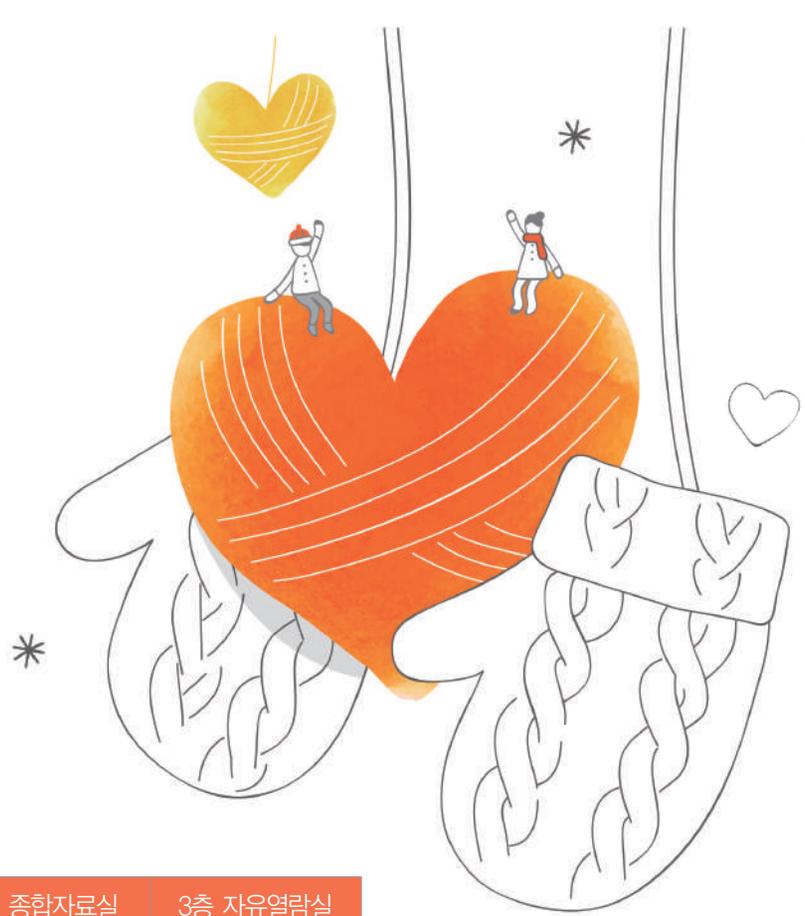
- 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 내 회원가입 PC 이용
- 데스크 직원에게 신분증 제시 → 안내에 따라 PC에서 회원가입신청 →
- 본인인증(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i-pin) → 회원정보 입력 →
- 데스크에서 추가 정보(아이디 등) 입력 → 회원증 발급

구분	회원정보입력시	구비서류
만14세 미만	본인인증 + 법정대리인 동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보호자등반 (신분증지참)
만14세 이상	본인인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경상남도 거주자가 아닐 경우 관내 소재의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 지참

공공 아이핀 발급 방법

- ① 공인인증서
- ② 주민등록확인시스템
- ③ 읍/면 주민센터(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등 3가지 본인인증 수단 중
※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공공아이핀 발급이 가능 합니다.
※ 단 14세 미만 아동은 아이핀 발급 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동반(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도서관 이용안내

이용시간

구분	1층 자료실	2층 종합자료실	3층 자유열람실
평일	09:00 ~ 18:00	09:00 ~ 22:00	08:00~22:00
토/일요일	09:00 ~ 17:00	09:00 ~ 17:00	08:00~22:00
금요일 법정공휴일	휴실		09:00~18:00

도서 대출/반납

- 대출권수 : 1인 5권
- 대출기간 : 14일(반납예정일 이내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 가능)
- 연 체 시 : 연체일수 만큼 대출정지
- 참고사항
 - 동일도서의 재대출은 일주일(7일) 후 가능(반납당일 재대출 불가)
 - 반납연기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
 - 도서 분실 및 훼손 시 동일도서로 변상

야간 도서대출 신청

- 이용자격 : 한마음도서관 회원
- 신청시간 : 09:00 ~ 16:30(자료실 운영시간 내 16:30까지만 신청 가능)
- 이용시간 : 18:00 ~ 22:00(평일: 종합자료실 / 주말: 행정실)
- 이용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도서 소장 및 대출여부 확인 → 야간대출 신청 → 도서관방문(회원증 확인 후 대출)
- 신청문의 : 종합자료실(940-8480), 어린이자료실(940-8478)

※ 당일신청 당일대출만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도서 예약 신청

- 신청도서 : 대출중인 도서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로그인 후 이용 가능)
- 이용방법 : 홈페이지 도서 검색 → 대출여부 확인 → 예약버튼 클릭

